

승리의 女神은 '신'을 택했다

〈지애〉

LPGA 아칸소챔피언십 3R 무결점 명품샷 폭발... 7타차 뒤집고 우승

유선영 공동 2위

‘파이널 킨’ 신지애(21·미래에셋)의 뒷심은 대단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P&G뷰티 NW아칸소챔피언십 최종일 3라운드가 열린 14일(한국시간) 미국 미칸소주 로저스의 퍼너클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신지애의 화려한 역전샷이 펼쳐진 ‘그녀만의 무대’였다.

2라운드까지 선두와 무려 7타나 뒤져있던 신지애가 버디 7개의 완벽한 샷으로 최종합계 9언더파 204타를 기록하며 연장까지 몰입하는 놀라운 투혼을 발휘했다. 결국 승리의 여신은 신지애에게 미소를 지었다.

시즌 3승이자 통산 6승째의 쾌거였다.

이 대회 전까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함께 2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였던 신지애는 가장 먼저 3승 고지를 밟았고 우승 상금 27만 달러를 보태 시즌 상금 149만 달러로 1위였던 크리스티 커(미국)의 137만 달러를 추월했다.

또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랭킹 포인트 30점을 보태며 127점이 돼 1위 자리에 우뚝 섰다. 이미 신인왕 부문에서는 독주 체제를 굳힌 신지애는 한국인 최초의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 수상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

이날 16번 홀(파4)에서 8m 정도 되는 긴 버디 퍼트를 넣어서 2라운드까지 단독 1위였던 김승희(21)와 함께 공동 선두로 올라선 신지애는 이후 안시현(24), 유선영(23·휴온스)까지 네 명이 8언더파에서 공동 선두를 이루는 혼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지애는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100m 거리의 세 번째 샷을 1.5m 정도에 붙이며 한 타를 더 줄여 단독 1위로 먼저 경기를 끝냈다.

이후 김승희와 안시현은 더는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 유선영이 마지막 18번 홀 버디로 연장에 합류했으며 안젤라 스탠퍼드(미국)는 18번 홀 극적인 이글로 플레이오프로 가는 막사를 탔다.

18번 홀에서 열린 1차 연장에서는 세 명이 모두 버디를 잡아 15번 홀(파3)의 2차 연장으로 승부가 넘어갔고 신지애는 앞선 두 명이 모두 버디 퍼트를 놓친 상황에서 4m 거리의 챔피언십 퍼트를 넣어서 우승 기쁨을 만끽했다.

유선영이 공동 2위, 안시현과 김승희는 공동 4위를 차지했고 최혜정(25)과 최나연(22·SK텔레콤)이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쳤다.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1언더파 212타로 커 등과 함께 공동 27위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연합뉴스



신지애가 13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퍼너클 컨트리 클럽에서 LPGA P&G 뷰티 NW 아칸소 챔피언십 골프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 후 연장전 두번째 홀에서 버디퍼트를 성공시킨 뒤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 한국인 첫 3관왕 보인다

〈올해의 선수·신인·상금왕〉

LPGA 31년만에 한 시즌 동시 수상 기대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31년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 시즌 신인왕과 올해의 선수상 동시 수상에 도전한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프로스포츠계에서 신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신인상은 물론 최우수선수에 오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LPGA 투어에서도 한 해에 이 두 부문의 상을 휩쓴 선수는 로페즈가 유일하다. 로페즈는 1978년 LPGA 투어에 데뷔해 9

승을 수확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신인상과 올해의 선수상은 물론 최저타수를 친 선수에게 주는 베어트로프까지 들어올렸다.

14일 아칸소챔피언십 우승으로 시즌 3승을 올린 신지애는 신인왕 포인트에서 1천 269점을 받아 684점인 2위 위성미(20·나이키골프)와 상당한 격차를 벌이며 최고의 투키상을 사실상 확보했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는 127점으로 2위 크리스티 커(미국·114점),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107점)에 앞서 있어 욕심을 낼만하다.

LPGA 투어의 올해의 선수상은 선수들간 투표로 정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는 달리 매 대회 성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우승할 경우 30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톱10 밖으로 밀려나면 점수가 없다. 메이저대회의 경우는 일반 대회 2배의 점수가 주어진다. 또한 최저 타수상 부문에서 신지애는 평균 70.39타로 커(70.17타)에 간발의 차로 뒤져 있어 남은 대회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연합뉴스

■ 신지애 일문일답

“그동안 올해의 선수에 욕심을 내지 않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회가 왔어요”

14일(이하 한국시간)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NW아칸소 챔피언십 우승으로 시즌 세번째 우승컵을 수확한 신지애(21·미래에셋)가 조심스럽게 ‘올해의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신지애와 전화 인터뷰.

■ 아무도 예상 못한 역전 우승이었다.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안좋아 선두권에 있는 선수도 잘 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3언더파 정도만 쳐 톱10에만 들

“올해의 선수상 노리겠다”

자고 마음먹었는데 뜻밖에도 경기가 잘 풀렸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1위로 올라섰다.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자신이 있는가.

▲욕심을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시즌 중반을 지나 10월이나 11월쯤되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우승으로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시즌 중반을 넘어서면서 체력적인 문제는 없나.

▲아시아시피 올해 초 시즌을 준비하면서

체력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동 거리가 길어 체력 소모가 더 크다. 한국과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다.

—남은 시즌 일정은 어떻게 되나.

▲17일 샌디에이고에서 개막하는 삼성월드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하나는 행-코오롱 챔피언십을 포함해서 남은 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우즈, 페덱스컵 랭킹 1위 복귀

BMW 우승... 시즌 여섯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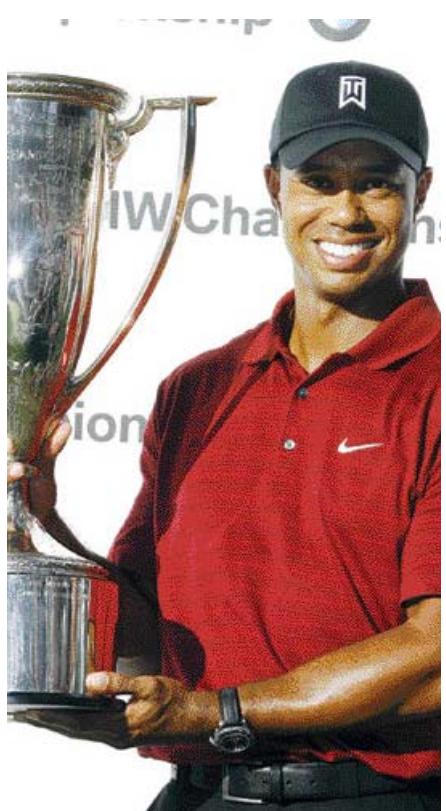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페덱스컵을 놓고 벌이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세번째 대회에서 완승을 거두며 페덱스컵 랭킹 1위 자리에 복귀했다.

우즈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레먼트의 코그힐 골프장(파 71·7천386야드)에서 열린 BMW챔피언십 마지막날 3타를 줄이며 합계 19언더파 265타로 시즌 여섯번째 우승컵을 수확했다. 개인 통산으로는 71승째가 돼 73승으로 역대 2위인 잭 니클라우스에 2승 차로 다가섰다.

짐 퓨릭(미국)이 5타를 줄이며 선전했지만 합계 11언더파 273타로 마크 레시먼(호주)과 함께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타를 줄여 합계 5언더파 279타로 공동 8위에 올라 30명만이 출전하는 투어 챔피언십 출전을 확정지었다. 나상욱의 페덱스컵 랭킹은 18위,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이번 대회에서 65위(13오버파 297타)로 부진했지만 페덱스컵 랭킹 21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합류했다. 반면 이번 대회에서 공동 23위와 공동 38위에 그친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과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는 페덱스컵 순위 35위와 56위에 그쳐 투어 챔피언십 출전이 좌절됐다.

우즈는 “올해 초반 해도 내가 올해 이런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이라며 “무릎 수술을 받고 돌아와 이런 성적을 내는 것에 매우 만족한다. 올해는 내 최고의 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자신감을 한껏 드러냈다. /연합뉴스



KIA ‘12년만의 우승’ 지금부터



주중 히어로즈·주말 LG와 ‘대혈전’

투타 재정비 ‘1위 수성’ 막판 스퍼트

프로야구 1위 전열이 벌어진다. 지난주 2위 SK에 이어 3위 두산에 각각 2연패를 당하며 4패를 기록한 KIA 타 이거즈가 1위 수성을 위한 막바지 스퍼트에 나선다. 느닷없이 1위 자리를 지키던 KIA는 투·타의 동반 하락세 속에 9월 들어 4승7패를 기록하며 2위 SK에게 0.5개 임차까지 추격을 당했다. 1위 수성에 비상이 걸린 KIA와 12연승으로 프로야구 판도를 휘젓고 있는 SK는 주중 히어로즈와 LG를 맞아 1위 자리를 놓고 혈전을 벌이게 된다.

윤석민의 이탈속에 견고하던 선발진이 흔들리며 위기를 맞은 KIA는 타선까지 하락세를 보이며 진퇴양난에 놓였다. 팀 내 사정뿐만 아니라 외부 상황도 KIA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지난주 세 구장을 돌며 6경기를 소화해야 했던 KIA는 이번 주에도 15, 16일 ‘난적’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를 갖는 후 홈으로 돌아와 LG와 주말 3연전 대결을 펼쳐야 한다.

불런진의 재정비로 탄력을 받은 SK는 남은 일정에서도 여유만만하다. 지난주 세 경기를 소화하며 총력전을 펼쳤던 SK는 15, 16일 잠실에서 LG와의 2연전을 갖은 후 이틀간의 달콤한 휴식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올 시즌 13승4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화를 홈으로 불러

들여 주말 2연전을 갖는다.

내·외적인 여건을 보면 주중 2연전이 끝난 뒤 1·2위 팀이 뒤 바뀔 수도 있는 상황. 양팀은 14일 현재 0.587과 0.584의 근소한 승률차이를 보이고 있다. SK가 주중 LG를 상대로 2승을 추가한다면 KIA는 1승1패만으로도 1위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입장이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KIA지만 주중에 만난 히어로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올 시즌 KIA는 히어로즈의 끈질긴 승부와 한방에 무너지면서 상대전적에서 7승8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의 노림수도 견제해야 한다. 지난 주 SK와 두산은 적극적인 공략으로 KIA의 ‘천적’ 선발진을 무너뜨리며 2승씩을 챙겨갔다. SK에게 올 시즌 2승을 챙겼던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KIA	74	48	4	0.587	2패
2	SK	73	47	5	0.584	12승
3	두산	69	54	2	0.552	2승
4	롯데	62	65	0	0.488	2승
5	삼성	61	64	0	0.488	3패
6	히어로즈	58	63	1	0.475	1승
7	LG	52	70	3	0.416	1패
8	한화	42	80	3	0.336	1패

서재응도 지난 SK전 등판에서 3과3분의 2닝동안 2실점하며 마운드를 내려왔고, 앞선 7번의 등판에서 2.01의 방어율로 3승을 낚은 ‘두산킬러’ 로페즈도 6이닝 9실점(4자책)으로 무너졌다. 여기에 느슨해진 수비도 선발진의 초반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초반 기싸움이 KIA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

한편 홈으로 돌아와 LG와의 마지막 3연전을 갖는 KIA는 주말 빨간 상의와 검정 하의로 된 ‘올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

“WBC 지출내역 공개하라”

선수협, KBO에 요구

프로야구 선수협회(회장 손민환)는 14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할 선수 15명이 모여 긴급 회동을 갖고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3월 WBC 기간에 지출한 경비 내역의 공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KBO에 보냈다고 밝혔다.

선수협회 권시형 사무총장은 “KBO가 WBC 기간에 지출한 경비 23억여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상세 내역과 증빙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2009 야구규약에 명시된 국가대표팀 운영규정(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KBO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